

‘알뜰폰’ 가입자 500만명 넘었다

27개 사업자 504만명...시장 점유율 2.9% → 8.8%로 월 통신비 2만원 가량 절약...정부 추가 지원책 만지작

반값 휴대전화를 표방하며 2012년 8월 출범한 ‘알뜰폰’이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지난달 21일 기준 50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사업자로는 SK텔레콤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유니콤즈 등 10개사와 KT 망을 이용하는 CJ헬로비

전·에넥스텔레콤 등 14개사, LG유플러스 망을 빌리는 스페이스네트·마천드 코리아 등 7개사를 합해 총 27개사가 있다.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 당시 155만명이던 가입자 수는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월평균 13만 8000여명씩 증가, 2년여 만에 3.2배 많은 504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동전화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8%에서 8.79%까지 늘었다.

이동통신 사업자별 가입자수는 SK텔레콤망이 233만5000명, KT망이 228만3000명, LG유플러스망이 42만2000명으로 4.6 : 4.5 : 0.9의 점유율을 보였다.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으로 본 월 통신비는 알뜰폰 이용자가 평균 1만5721원으로 이동통신 3사 이용자(평균 3만6404원)에 비해 월 2만683원(57%)을 아낀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부는 알뜰폰이 앞으로 10~15%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이동전화 시장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와 대등한 주제로 자리 잡아 고착화된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2015년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여부 ▲LTE·정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 개설 ▲신뢰성 증대를 위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 계획 ▲알뜰폰 상품 구성의 다양화 방안 등이 담겼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올해는 알뜰폰이 점유율 10%를 넘어서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 있는 경쟁주체로 자리 잡을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갤럭시S6용 헤드셋 ‘삼성기어VR’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결합해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헤드셋 기기 ‘삼성기어 VR(사진)’을 7일 출시한다.

삼성기어 VR은 헤드셋에 갤럭시S6나 갤럭시 S6엣지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 360도 파노라믹 뷰와 96도의 넓은 시야각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마치 영상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생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또 갤럭시S6에 탑재된 577ppi의 쿼드 HD수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오클러스 시네마, 오클러스 360도 포도, 오클러스 360도 비디오 등 VR 전용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된 전용 게임 카테고리에서 30개 이상의 유·무료 VR 게임도 즐길 수 있다.

크기는 갤럭시S6의 규격에 맞추어 작아 작아 작은 사이즈로 제작됐다. 무게를 분산시키는 인체 공학 스트랩을 적용해 착용감이 좋아졌고,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터치 패드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중앙에 돌기를 만들어 편의성도 높였다. 외부 USB 포트로 자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 콘텐츠 소비 시간도 늘어났다.

제품은 삼성전자 스토어(www.samsung.com/sec/shop/)에서 살 수 있다. 구매 고객 중 선착순 500명은 멸종 위기 동물 배터리팩(8400mAh)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는 24만9000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KT ‘응답하라, 집전화’ 공모 이벤트 KT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응답하라, 집전화’라는 제목으로 집전화에 얽힌 사연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사연과 함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이메일(kt-family@kt.com)로 보내면 된다. 형식과 분량에 제한은 없다. <KT 제공>

휴대전화 ‘20% 요금할인제’ 탄력받나

사흘만에 신규 가입자 15배 ‘경증’...시장 추이 관심

휴대전화 개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된 뒤로 사흘 만에 이를 이용한 신규 가입자가 이전보다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시장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

의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 이용자 후생이 크게 강화된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이 20%로 올라간 지난달 24일부터 일별 가입자 수를 보면 상향된 할인율에 많은 소비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제를 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시행 첫날인 24일에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12%대인 23일(1463명)의 8배가 넘는 1만2566

명으로 급증했고, 이동통신 가입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토요일인 25일에도 4배 가까이 4364명을 나타냈다. 일요일이라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이 가동하지 않았던 26일 가입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27일 하루 가입자수는 무려 3만5235명까지 수직 상승했다. 미래부는 작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12% 요금할인제를 도입했지만 하루 평균 가입자 수가 858명, 낮을 때는 200명 선까지 떨어지며 시행 6개월만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임동률기자 exian@

‘태블릿 위기론’ 현실화

1분기 판매량 9%나 감소 아이폰6플러스 잠식 효과



태블릿이 사양길에 접어든 가운데 특히 태블릿의 원조격인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량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태블릿 시장의 위기가 현실화한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발표한 ‘글로벌 태블릿 OS 시장 점유율’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태블릿 판매량은 5180만대로 지난해 1분기(5670만대)보다 9% 감소했다. 분기 기준 태블릿 판매량 감소 비율(전년 동기 대비)이 10%에 육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도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줄기는 했지만 3%가량에 그쳤고, 지난해 한 해 총 판매량은 미세하나마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글로벌 태블릿 판매량의 역성장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이른바 ‘태블릿 위기론’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0년부터 형성된 태블릿 시장은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사양길에 접어들게 된 셈이다.

주된 이유로는 5.5인치에서 7인치

에 이르는 대화면 스마트폰 ‘패블릿’(스마트폰+태블릿의 합성어)의 등장 가능성이 꼽힌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5.7인치)나 애플의 아이폰6플러스(5.5인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패블릿처럼 얇고 가벼워진 노트북(울트라북)은 물론 ‘울트라 모바일’이라 불리는 소형 PC의 등장 역시 태블릿 수요를 빼앗고 있는 데다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보다 짧은 것도 애초에 시장 자체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 SA 예비보고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애플의 아이패드만 유독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다는 것이다. SA는 애플 운영체제인 iOS 기반 태블릿(아이패드의 올 1분기 판매량이 1260만대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1640만대)보다 23%나 떨어진 수치다. 전체 태블릿 시장의 역성장을 아이패드가 주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지난 5월 5일은 1923년에 제정된 어린이날이 93회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아이들이 제대로 놀기 힘든 요즘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창의력이 쑥 자라는 앱을 소개한다.

Fiete / Ahoiii Entertainment UG / 안드로이드, 아이폰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꾸며진 논리게임이다. 인기 캐릭터와 함께 99개의 레벨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캐릭터를 찾아내는 게임이다.



monster mingle / Cowly Owl Ltd / 아이폰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몬스터를 만드는 게임이다. 귀여운 몬스터를 만들어 재미있는 미션을 진행하면서 수영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Bubi드로우 / BUBL GmbH /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양한 패턴과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앱이다. 색과 형태에 따라 작곡되는 음악이 바뀌며 배경음악으로 제공된다.



DESIGN ZOOZ 제공·디자인주소
ZOOZ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z.com)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먹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CHANNEL A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